

광주지역 코로나19 전방위 확산세

사흘새 최소 39명 확진, n차 확산 빠르게 진행

어린이집·담양 발·호프집·교회·사우나까지

대학교수·고3·어린이집 교사·원생까지 감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매섭다.

보육과 교육현장은 물론 호프집과 사우나, 도심 대형건물까지 곳곳에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연결고리 찾기 애를 먹고 있다.

요양시설이나 콜센터, 대형 종교시설과 폐쇄형 교육시설 등 '3밀'(밀집, 밀폐, 밀접)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던 집단감염이 최근에는 가족, 지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초기 방역난(難)이 심화되고 있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20일, 1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43일 만에 최다 기록을 세운 이후 21일 9명, 22일 오후 2시 현재 13명 등 사흘새 4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3월12일부터 한 달 동안 54명이던 지역내 감염이 이후 10일(12~21일) 사이 89명이나 발생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광주 31명을 비롯, 전남 19명, 전북 2명, 서울 1명

등 1주일새 53명에 이른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주점과 광산구 중국음식점에서 각각 13명과 14명의 n차 감염이 더해지면서 50명을 훌쩍 넘겼다.

남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생과 보육교사 등 최소 10명이 원내 감염돼 가족과 지인 등으로의 n차 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광주 2312번)가 인근 대형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이 이틀째 심층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 교사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 주일예배에 참석했고, 전체 교인 3000여 명 중 1700여 명에 대해 선별검사가 진행중이다.

광주 행정1번지인 상무지구 내 고

흥 업무용 빌딩과 남구 유명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각각 임주기관 종사자 전수조사와 접촉자 분류작업이 진행 중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어린이집, 사우나, 호프집 등은 임시 폐쇄됐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2월 초 첫 확진자 발생 후



22일 오후 광주 북구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되는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확진자가 나온 여고는 오는 23일 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구 어린이집의 경우 '광주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학원밀집지역에 위치해 인근 학교는 물론 학원가에도 코로나19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다.

광주 행정1번지인 상무지구 내 고흥 업무용 빌딩과 남구 유명 사우나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각각 임주기관 종사자 전수조사와 접촉자 분류작업이 진행 중이다.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어린이집, 사우나, 호프집 등은 임시 폐쇄됐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해 2월 초 첫 확진자 발생 후

광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38명, 검사인원은 94만5600여 명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이계호 의원 담양사무소 흥보실장의 가족과 완도, 순천 주민 등 이틀새 8명의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24명을 기록 중이다. 전남지역 누적 검사인원은 101만 명이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최근 "또 다시 위기"라며 "개인의 이기주의, 일탈 행위로 공동체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자체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완도해경, 코로나 유행 대비 복무기강과 방역상태 재점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와 방역 활동 피로감 등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전 직원의 복무상태를 확인하고 청사·함정 방역상태 재점검에 나섰다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코로나19 4차유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업무공백에 대비스물바른 마스크 착용 △내·외부인 출입 시 발열 체크 의무화, 워킹 클린 시스템 이용 방역 철저 △재태근무 3분의 1 이상 실시 △의심 증상자에 대한 출근 금지 등을 확인·점검한다고 전했다.

또한 품위손상 행위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등 기본 근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각 부서장들의 교양교육을 강화하여 자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성식 완도해경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칫 헤이해질 수도 있는 복무기강과 방역상태를 재점검하며 직원들을 독려하겠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여 방역수칙을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순천소방, "반드시 살린다" 수난구조훈련 실시

순천소방서는 잠수기술 능력 제고로 수난사고 현장 활동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3일까지 광주 남부대학교 다이빙풀장에서 순천소방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인명구조사 자격 평가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20년 구조경력인 순천소방서 119구조대 채영섭 팀장(1급 인명구조사) 등이 교관을 맡았다.

따라서 수상·수중구조 기술능력 제고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정적인 잠수기술 확보, 유형별 개인·팀별 수중구조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작년 7월 다발적으로 발생한 수난사고로 인해 고강도 수난구조훈련의 수요가 증가했다. 수난사고 현장상황은 변수가 많고 대원의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금년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소방서는 지난 3년 동안 97건의 수난사고에 출동해 41명을 구조했으며, 119수상구조대 운영 대비 수난특별구조훈련, 수난구조분야 인력풀(pool) 구성, 구조대원 인명구조사 자격취득, 급류지역 수난사고 위협성 연구 등을 통해 수난사고 현장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주 남부소방, 유치원 등 아동관련 시설 화재안전진단

광주 남부소방서는 관내 사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위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 관내 사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총 170곳으로 현장 방문하여 소방시설 확인 및 관계자 안전교육 등 화재안전 등급분류를 통해 종합적인 화재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유치원 등 피난약자시설(유아, 노인, 장애인 등)은 화재가 발생 시 피난의 어려움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최윤희기자

나주경찰, 관내운동부 학생대상 학교폭력 예방간담회성료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4주간 최근 학교폭력 미투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운동부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초·중·고 운동부 13개교 13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특히 학교폭력 발생 이후 성인이 돼서도 표리표로 남아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상철 나주경찰서장은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고 학생들이 훌륭한 선수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19 잇단 확산에 곳곳 폐쇄 전남대 '비상'

타지서 광주 찾았다 '시험 연기' 소식에 발길 되돌려

동선 중복·감염 확산 우려에 모임·외출 자제 분위기

2021-04-21 16:25:00 **대학 알림(필수)**

코로나19 교내 확진자 발생 안내

자연과학대학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하여 방문 시설(자연대1호관, 자연대2호관, 햇들마루)을 폐쇄하고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4월 15일(목) 12:00~12:50

■ 4월 20일(화) 12:00~12:50

광주캠퍼스 햇들마루를 방문하신 분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남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

첨부파일 -

전남대학교 구성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이날 대학 교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선이 겹친 학내 구성원들이 선별진료소 등지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자연대 1·2호관과 학내 식당은 폐쇄됐다. 농업생활과학대 등 일부 단과 대학 건물도 선제적 차원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시험을 연기한 과목도 잇따라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문대학 이모(23·여)씨는 "지난

밤까지 전력을 다해 공부했는데, 시험이 연기돼 허탈하다. 시험 일정이 잡히면 다시 공부를 해야 하고 개인 일정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대 4학년 임모(26)씨는 "타지에 사는 지인이 대면 시험을 위해 광주에서 2~3일 머물렀는데 이날 시험이 연기돼 한숨을 쉬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주변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사례도 잇따르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학교 내 기숙사에 사는 김모(22·여)씨는 "엘리베이터나 학교 곳곳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을까 염려 된다. 당분간 외출을 삼가고 모임을 자제할 계획이다"며 감염 확산을 우려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